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성 분석

김성민^{1*}, 최해술²
^{1,2}창신대학교 경영학과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Small and Medium Firm's Stability and Tax Avoidance

Seong-Min Kim^{1*}, Hae-Sul Choi²
^{1,2}Dept. of Management, Chang-Shin University

요약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소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금융상장법인과 비금융코스닥등록법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small and medium firm's stability and tax avoidance. We use some financial data of small and medium IT firms in KOSDAQ during 2001 to 2009. Following previous research(Desai and Dhamapala 2006), we estimate corporate tax avoidance. And we use quick ratio and current ratio as a short-term stability and equity ratio as a long-term stability.

Empirical results follows as.

First, I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between short-term stability and corporate tax avoidance. Second, it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between the long-term stability and corporate. As corporate tax avoidance increases, the long-term stability(equity ratio) was low.

Our analysis provides the empirical evidence between long-term stability and tax avoidance. It offers implications of corporate tax avoidance to small and medium IT firms in KOSDAQ. But this results is difficult generalization because of sample limits.

Key Words : stability, tax avoidance, quick ratio, current ratio, equity ratio

1. 서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이만우 외 2006). 이처럼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금전급부이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거부감과 조세저항을 가져오며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한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재정수입을 필요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세무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진희·정재욱(2006)은 자산이 증가할수록, 세전이이익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으며,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운성·김지홍·최원욱(2007)은 조세부담수준과 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혜택수준이 감소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박종국·홍영은(2009)은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심충진(2011)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된 자금의 원천이 설비투자 등 자본적지출이나 배당금지급에 사용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기업은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며, 배당압력 대응과 같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회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조세회피행위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를 가져 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중요 재무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장·단기적 재무적 안정

성¹ 즉, 장단기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는 Desai and Dhamapala(2006)가 제시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또한 기업의 장·단기적 재무적 안정성 중 단기적 안정성으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사용하며, 장기적 안정성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IV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은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III장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IV장은 연구결과 및 함의를 서술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강제로 부과되는 금전급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소득재분배와 자원재분배에 문제점을 야기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하게 되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감소시켜 세후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회피가 합리적인 세무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Mill et al(1998)은 세무계획으로 소요되는 1\$의 비용은 차후 4\$의 수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으며, Philips(1999)는 세무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산과 세전이이익이 증가할수록, 조세혜택수준이 감소할수

1) 재무적 안정성이란 단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기업의 단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클수록 부채상환능력이 높고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자산을 조달하고 자금 충감을 필요가 없는 자금의 비율로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록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진희·정재욱 2006, 고윤성·김지홍·최원욱 2007 등), 심지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기업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Desai and Dhamapala 2006, 고윤성 외 2007). 심지어 심충진(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조세회피로 인한 자금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절감액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금유출의 감소액은 부채상환이나 시설투자 혹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단기적인 부채상환능력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1을 설정하였다. 또한, 심충진(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어떤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1 : 조세회피추정액은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조세회피추정액은 기업의 장기적 유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조세회피추정액이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든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RATIO_{i-3} = \alpha_0 + \beta_1 TAVOID_i + \beta_2 LEV_i + \beta_3 ROI_i + \beta_4 ASSET_i + \Sigma Y_i + \epsilon_i \quad \dots\dots\dots(1)$$

단, $RATIO_{i-3}$: 1.당좌비율 2.유동비율 3.자기자본비율
 $TAVOID_i$: Desai and Dhamapala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
 LEV_i : 부채비율(부채총액/총자산)
 ROI_i :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총자산)
 $ASSET_i$: 자산총액(log(총자산))
 $YEAR$: 연도별더미변수

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기업의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험변수로서 조세회피추정액을 두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식(1)에서 관심있는 것은 계수 β_1 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다. 만약 β_1 의 부호가 양(+)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조세회피행위가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β_1 의 부호가 음(-)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가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안정성은 통제변수인 자산규모 및 총자산순이익률과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반대로 부채비율과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로서 재무적 안정성(RATIO)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안정성으로 구분한다. 단기적 안정성의 대용치는 기업의 단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사용한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적 부채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dots\dots\dots(2)$

■ 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dots\dots\dots(3)$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대용치는 식(3)과 같이 순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만약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않으면 망하게 되지만 순자산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은

기업이 해산하지 않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자기자본비율은 자산을 조달하고 있는 자금 중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기업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순자산}}{\text{총자산}} \times 100 \dots\dots(4)$

3.2.2 실험변수로서 조세회피추정치의 질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세회피추정치는 Desai and Dhamapala(2006)가 제안한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이익조정행위와 조세회피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이금액 중 이익조정행위를 제거한 나머지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았다. 즉, 총발생액을 이익조정행위의 대응치로 보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치로 보았다.

여기서 재무보고이익의 대응치로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며, 세무보고이익에 대한 대응치는 Desai and Dhamapala(2006)가 제안한 모형에 의해 계산된 추정세무보고이익³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이 고려되어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세무보고이익이 0 혹은 음(-)의 값을 보인 기업의 경우엔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적이므로 세무보고이익이 양($\widehat{Y}^T > 0$)인 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한다(박종국·홍영은(2009)).

조세회피추정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부담액⁴을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율⁵로

- 2)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 볼 때 재무보고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무보고이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다. 즉, 세무보고이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세회피추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규안·김철환(2008)은 세무보고이익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추정세무보고이익을 각각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어떤 측정치를 사용하던 간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 4)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전기말 연법인세자산) - (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전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5) 법인세율은 법정최고법인세율로서 연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2004년:30.8%, 2005년~2008년:27.5%, 2009년:24.2%

나누어 추정세무보고이익 \widehat{Y}^T 를 계산하였다. 그런 다음 식(3)과 같이 재무보고이익과 추정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BTD = Y^S - \widehat{Y}^T \dots\dots(5)$

단, BTD: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Y^S : 재무보고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widehat{Y}^T : 세무보고이익의추정치

다음으로 식(4)와 같이 BTD를 총발생액으로 회귀 분석하고 잔차 v_i 를 측정하여 이를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사용하였다.

$\frac{BTD_i}{Asset_{t-1}} = \beta_i \frac{TACC_i}{Asset_{t-1}} + v_i \dots\dots(6)$

단, $Asset_{t-1}$: 기초총자산
 TA_i : 기업i의 총발생액
 v_i : 잔차= 조세회피추정액(Tavoid)

조세회피추정액 중 t-student값이 1.5 이상인 것은 이례치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3 표본의 선정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조세회피추정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표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코스닥상장법인(중소기업)으로서 비금융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관리대상 기업에 편입되거나 표본기간 중 재무제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비금융업인 기업(금융업과 보험업 외의 기업)
- (2) 재무자료의 입수기간 동안 관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3)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4) 추정세무보고이익이 양($\widehat{Y}^T > 0$)인 기업
- (5) 분석기간 동안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한 기업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명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AVOID	1087	0.00296	-0.00251	0.06403	-0.14683	0.14930
TACC	1087	-0.01939	-0.02391	0.12142	-0.39876	0.39667
LEV	1087	0.73852	0.52000	0.72764	0.02000	5.99000
ASSET	1087	22.22515	24.36361	1.05486	20.14850	27.5129
ROI	1087	0.10995	0.09274	0.08205	0.00055	0.75211
DANGJA	1087	229.0306	189.3300	143.2742	45.65000	599.0100
CURR	1087	264.9739	227.3000	142.9879	47.56000	598.9900
ACAP	1087	61.48164	62.18000	15.18003	16.61000	94.68000

단, TAVOID : 조세회피추정액, TACC : 총발생액, LEV : 부채비율, ASSET : 총자산, ROI : 총자산순이익률, DANGJA : 당좌비율, CURR : 유동비율, ACAP : 자기자본비율

(1)의 경우 금융업과 보험업의 재무제표 자료는 일반기업과 다르므로 자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는 관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는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왜곡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은 결산시점의 차이는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가져 오므로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기업은 제외하였다. (4)는 추정세무보고이익이 음(-)이거나 0인 기업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각 229.03과 264.97로서 유동비율이 다소 크게 측정되고 있는데 이는 당좌비율의 계산시 재고자산의 값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비율의 경우에는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61.46과 62.18로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추정액(TAVOID)과 총발생액(TACC)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것은 이례치로 보아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결과와 해석

4.1 기술통계량

[Table 1]은 조세회피추정액이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의 평균은 0.00296이며 중위수는 -0.00251로서 분포가 약간 음(-)의 방향을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발생액(TACC)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0.01931, -0.02391로서 평균보다 약간 왼쪽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서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균은 각

4.2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을 기준으로 종속변수인 당좌비율(DANGJA), 유동비율(CURR), 자기자본비율(ACAP)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0.1073, 0.1110 그리고 -0.3599로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은 조세회피추정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조세회피추정액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세회피추정액이 크지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TAVOID	ROI	LEV	ASSET	DANGJA	CURR	ACAP
TAVOID	1.0000						
ROI	0.2190 ^a	1.0000					
LEV	-0.0705 ^b	-0.0850 ^a	1.0000				
ASSET	-0.1378 ^a	-0.2046 ^a	-0.0764 ^b	1.0000			
DANGJA	0.1073 ^a	0.2880 ^a	-0.2686 ^a	-0.1089 ^a	1.0000		
CURR	0.1110 ^a	0.2763 ^a	-0.2718 ^a	-0.0966 ^a	0.9604 ^a	1.0000	
ACAP	-0.3599 ^a	-0.6467 ^a	0.0010	0.2366 ^a	-0.1578 ^a	-0.1755 ^a	1.0000

단, TAVOID : 조세회피추정액, LEV : 부채비율, ASSET : 총자산, ROI : 총자산순이익률, DANGJA : 당좌비율, CURR : 유동비율, ACAP : 자기자본비율

Table 3. Regression Analysis

변수명	구분	당좌비율(a)		유동비율(b)		자기본비율(c)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461.67	4.53 ^a	464.34	4.55 ^a	46.54	5.51 ^a
TAVOID		58.15	0.88	65.96	1.16	-51.81	-8.51 ^a
LEV		-49.86	-8.90 ^a	5.61	-8.89 ^a	-1.15	-2.48 ^b
ROI		430.06	8.22 ^a	52.43	7.78 ^a	-108.75	-25.10 ^a
ASSET		-10.41	-2.47 ^a	4.21	-2.09 ^b	3.45	3.45 ^a
YEAR		포함		포함		포함	
F값		17.90 ^a		16.95 ^a		91.52 ^a	
adj. R ²		0.14		0.14		0.47	
DW		2.024		1.970		1.875	

면 당좌비율과 유동비율도 크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자산순이익률(ROI)의 경우에서도 조세회피추정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자산순이익률이 커지면 당좌비율과 유동비율도 크지는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부채비율과 자산규모는 조세회피추정액과 총자산순이익률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부채비율이 커지면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은 작아지며 부채비율이 작아질수록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산규모 또한 부채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3 회귀분석결과

[Table 3]은 기업의 장단기적 안정성과 조세회피추정액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의 (a)는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이 기업의 단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당좌비율(DANGJ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은 당좌비율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의 경우에서도 (a)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추정액(TAVOID)가 유동비율(CURR)과 양(+)의 관계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세회피추정액(TAVOID)과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비율과 유동비율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심충진(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c)는 조세회피추정액(TAVOID)과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은 자기자본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추정액(TAVOID)과 자기자본비율과는 음(-)의 관계로서 조세회피추정액(TAVOID)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낮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ATIO_{1-3} = \alpha_0 + \beta_1 TAVOID_i + \beta_2 LEV_i + \beta_3 ROI_i + \beta_4 ASSET_i + \Sigma Y_i + \epsilon_i$$

단, $RATIO_{1-3}$: 1.당좌비율 2.유동비율 3.자기자본비율
 $TAVOID_i$: Desai and Dhamapala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
 LEV_i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I_i : 순자산이익률(순이익/총자산)
 $ASSET_i$: log(총자산)
 $YEAR$: 연도별디미변수

이상과 같이 조세회피추정액(TAVOID)과 자기자본비율(ACAP)과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어떤 특성에 연유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표본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조세의 현금유출의 감소액이 기업들의 장단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들의 조세회피추정액을 실험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단기 안정성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장기적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추정액은 Desai와 Dhamapala(2006)이 제안한 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총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금융회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9까지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단기적 안정성 즉,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간에는 어떠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의 감소액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세회피액이 클수록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들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기업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스닥 등록법인 중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분석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비금융상장법인으로 확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고윤성·김지홍·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24.
 [2] 김진희·정재욱, 2007.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6, pp.97~123.
 [3] 박종국·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pp. 105~135.
 [4] 심충진, 2011. “조세회피와 채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pp.185~208
 [5] _____, 2009. “조세회피와 회계감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50호 pp.1~23.
 [6] 이병산·정재현, 2008.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세무학연구 제25권 제1호, pp.139~168.

[7] 전규안·김철환,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 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167-190.
 [8] 최명근, 2005. 세법학총론, 세경사.
 [9] Desai, M. A. 2003. The Divergence between Book and Tax Income. in J. M. Poreba(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17 MIT Press, Cambridge, MA: 169-206.
 [10]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5a.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Tax Shelter, Working Paper.
 [11] _____. 2005b. Earnings Management and Firm Value. Working Paper.
 [12] _____.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13] _____. 2009. Earnings Management, Corporate Tax Shelters and Book-tax Aligement, Working paper.
 [14] Dhaliwal, D.S., Z. Li, A. Tsang and G. Y. Yang 2010.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 The Case of Corporate.
 [15] Dyreng. S., M. Hanlon, and E. Mayew.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 (1) : 61-82.
 [16] Mills,L. 1998. Book-Tax Difference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n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343-355.
 [17] Lev, B. 1989. On the Usefulness of Earnings and Earnings Research: Lessons and Direction from Two Decades of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upplement) : 153-192.
 [18] Phillips, J. 1999. Corporate Tax Planning Effectiveness: The Role of Incentives. Working Paper.
 [19] William J. Moser, Inder K. Khurana and K. K. Raman 2011. Does Non-Conforming Tax Avoidance Affect Investment Decisions? Working Paper.

저 자 소 개

김 성 민(Seong-Min Kim)

[정회원]



- 1996년 8월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중소기업 이익관리 및 조세지원정책

최 해 술(Hae-Sool Choi)

[정회원]



- 1997년 8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현 창신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 경영정보, 중소기업재무